

기금평가제도에 대한 구체적 개선방안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.

<보도내용>

- 7.26.(일) 매일경제는 “‘유명무실’ 기금평가, 내년부터 확 바뀐다” 제하의 기사에서,
- “기획예산처가 내년부터 ‘기금평가제도’ 손질”에 나선다며, “설립 목적이 명확한 기금은 존치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고, 통폐합·폐지 권고를 받은 기금의 이행 여부를 관리하는 환류 장치를 강화할 방침이다.”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
<기획예산처 입장>

- 기획예산처는 성과관리 개선 TF를 구성하여 기금평가제도의 실효성 강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.
- 다만, 구체적인 개선 방향 및 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 부서	기획예산처 재정성과총괄과	책임자	과 장	김완수 (044-214-3210)
		담당자	사무관	한정연 (jyhan03@korea.kr)